



일본출판계 먹구름 걷힐줄 모른다

일본 출판업계의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출판사들의 2001년도 결산에 의하면 쇼가쿠칸, 가도카와 쇼텐, 인프레스 등의 3사가 적자로 전락하였으며, 각슈켄큐사는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코단샤도 최종 이익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인터넷 보급이나 신(新)고서점(종래의 영업형태와 다른 고서점의 총칭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한 대형 판매점을 일컬음. 독자로부터 구매한 헌책을 판매하는 점은 종래의 고서점과 같으나, 헌책을 연마기로 갈아서 깨끗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특징. 가격도 책의 내용보다 책의 보존상태 등이 우선됨)의 대두 등의 구조적인 역풍이 더해져 히트작의 부재와 출생률 감소 현상, 정보기술(IT) 불황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히트작 부재

일본 최대의 종합 출판사인 코단샤는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서적 사업이 부진하다. 히트작이 적어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18.4%가 감소하였다. 70%정도를 차지하는 잡지사업도 3.1%증가에 그쳤다.

경상이익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악화되었다고 한다. 퇴직 급부 회계 도입에 따른 미처리채무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도 있어서 최종이익은 75% 감소했다. 쇼가쿠칸도 히트작은

5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인터넷 · 휴대전화 영향

미스터리 소설 '模倣犯' 정도이다. 서적 사업은 1.7% 증가했으나 만화를 포함한 잡지사업은 눈에 띄는 히트작이 없어 1.3% 감소하였다. 경상이익은 변동이 없지만 퇴직 급부회계 도입으로 미처리 채무 86억엔을 특별손실로 일괄 계상하여 적자를 기록했다.

가도카와쇼텐은 잡지 · 서적 모두 매출이 크게 떨어져 상장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중견 출판사인 코분샤는 2002년 5월 결산기에도 적자를 보여 3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슈후노토모샤의 2002년 3월 결산기도 매출이 8%감소하였고 경상이익은 30% 감소했다.

출생률 감소

인구의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을 밑돌아 출생률이 감소하





는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다. 각슈켄큐사는 과학, 학습 등의 초등학생용 잡지판매 저하가 그치지 않아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베넷세 코퍼레이션의 잡지사업은 회사 전체매출액의 약 35%를 점유하여 19% 늘었으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은 침체 상태에 빠진 어린이용 잡지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 창간한 고령자를 위한 서적이나 식자재 통신판매 등의 잡지 매출액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개혁의 적극 지원으로 20억엔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IT불황

구인 정보지에 주력하고 있는 리쿠르트는 3기만에 경상이익이 감소되었다. 2000년에는 호조를 보였던 IT분야의

구인광고가 침체에 빠졌다. IT 관련서적·잡지가 주력인 인프레스는 주 고객층인 PC·인터넷 초보자용 입문서 '할 수 있다' 시리즈의 판매가 30%나 줄어 큰 폭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시장 축소

출판시장은 구조적인 감소추세를 띠고 있다. 출판과학연구소에 의하면 2001년도 출판물 판매액은 전년도에 비교하여 3.0% 감소한 2조 3,249억엔으로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야노경제연구소는 앞으로 6년간 출판시장은 지금보다 10%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소요인은 먼저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소비자의 지출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분야로 이동되어 독서시간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는 1998년에 1천만명, 2001년에 3천만명을 돌파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의 가입대수도 1997년 제로(0)에서 2000년에 천만대, 2001년에 3천만대를 넘었다. 출판물 판매가 감소된 시기와 일치한다.

정보지나 실용서는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때문에 입은 타격이 크다.

북오프 코퍼레이션(Book Off Corporation) 등의 신고서점 체인점의 성장도 영향을 끼쳤다. 신간 서적이 수일 후에 신고서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적판매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종래의 일반 서점은 최근 몇년간 매년 1,000점 내외의 속도로 폐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각 출판사는 신간이나 잡지의 창간을 늘려왔지만 서점으로부터 반품율을 높이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2001년 잡지 반품율은 과거 최악 수준인 29.4%이었다. 각 출판사는 서적·잡지의 인터넷 보급 등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수익이 올라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유창준국장)

서점폐업·도서반품 급증 IT관련 서적들도 '썰물'

〈표〉 최근 출판사 실적

	출판사	매출액	경상손익	단기손익
종합출판사	코단샤	176,928	-	776
	쇼가쿠칸	179,784	-	3,177
	가쿠슈켄큐샤	158,201	-	▲908
	가도카와쇼텐	157,959	-	4,149
	가도카와쇼텐	109,198	407	▲12,953
	가도카와쇼텐	117,544	▲672	▲7,542
정보계출판사	리쿠르트	101,913	▲828	▲5,987
	리쿠르트	105,281	1,682	715
	리쿠르트	322,168	97,603	2,119
	리쿠르트	326,547	101,212	2,118
	베넷세	267,249	267,249	326
	베넷세	262,948	262,948	16,498
인프레스	쇼분샤	18,552	1,977	37
	쇼분샤	19,839	1,775	118
	인프레스	12,805	▲1,317	▲1,247
	인프레스	14,555	559	383